

경계 밖의 수용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이 승 역*

1. 머리말
2.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본 보존기록학
3.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 주요 개념과 포스트모더니즘
 - 1) 보존기록의 정의와 속성
 - 2) 보존기록의 관리 원칙 :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 3) 보존기록의 가치 : 평가선별
4. 맺음말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주요 논저 :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대통령 국정수행 기록화의 진전」, 『기록인』 제2호 2008;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투고일 : 2013년 9월 23일 ▪최초심사일 : 2013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5일.

[국문초록]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그 어떤 현실도 그것에 관한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담론을 결코 초월할 수 없다. 근래 들어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보존기록학에서는 보존기록을 자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축된 산물로 간주하며, 보존기록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원칙도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그 내용은 물론 그것을 기획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으로 다룬다. 여기에서는 아키비스트 자체도 이와 같은 상대화될 수 있는 맥락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존기록과 관련한 현실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긍정적 견해도 있다.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존기록 속성, 출처, 원질서, 보존기록으로서의 가치 등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 포스트모더니즘, 보존기록, 보존기록학, 출처, 원질서, 보존기록가치

1. 머리말

아키비스트의 신념은 증거의 존엄성에 있으며, 그의 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기록에 수반되는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며, 그의 목표는 편견이나 덧붙임이 없이 지식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존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Hilary Jenkinson

해체(deconstruction)의 관점에서, 보존기록관은 전문직이나 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한가한 은거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도가니이며, 의미와 중요함을 놓고 다투는 싸움터이자 이야기의 바벨탑이다. 끊임없이 복잡하게 교체되는 권력이 작용하는 이곳에서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Verne Harris

근래 들어 구미의 북미의 보존기록학(archival science)¹⁾ 문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쿡(T. Cook)은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간과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당대의 시간과 장소라는 동시대성이 기록 생산, 보존기록, 보존기록관에 관한 전문지식에 투영된다는 점, 두 번째는 대학에 확산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장래 아키비스트나 보존기록관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의 주요 틀이 될 것이라는 점, 세 번째는 최근 보존기록학 문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 네 번째는 데리다(Jacques Derrida)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이 보존기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쿡은 기존의 보존기록학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존기록관 이용자나 후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²⁾

1) 'archival science'는 기록학, 기록관리학, 보존기록학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기록학'은 통상 '기록'이라는 용어를 학계에서는 현용기록(records)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용과 보존기록을 통칭하는 것이 아닌 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관리학은 '관리'라는 실무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어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다. 아카이브즈(archives)는 보존할만한 가치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보존기록'으로 번역하는 용례가 있는 만큼 아카이브즈에 관한 학문이라는 'archival science'를 '보존기록학'으로 번역하였다.

2)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대체로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는 상황적 요인이다. 본질적으로 주목할 것은 첫 번째이다. 이는 보존기록학의 기본 개념들을 동시대성을 가진 사회적 담론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의미하며,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쿡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저자의식(authorship), 매체, 재현, 조직행위, 개별적·집단적 기억, 문화적 기관, 역사, 보존기록관 자체 등 아키비스트가 주목해야 할 거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³⁾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Vol. 51, No. 2, 2001, pp.19-21. ‘해체’ 철학으로 유명한 데리다는 자신의 저작에서 보존기록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보존기록관을 정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존기록관을 통제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그의 언명은 이를 잘 말해준다. 데리다의 여파로 포스트모더니즘 측면에서의 보존기록 문제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구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한 보존기록학에 대한 연구 사례는 Terry Cook의 같은 글의 각주 14 및 Tom Nesmith,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s* Vol. 65, 2002, p.25를 참조.

- 3) Ibid., p.15. 포스트모더니즘을 직접 인용하거나, 대안적 기록화 같이 문제의식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명환, 「구성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본 기록학,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구』 제45호, 2013; 박혜진, 「집단기억의 기록화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구성 - 노근리사건의 경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3; 조은성,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이경래,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최재희, 「영국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 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기록학연구』 제36호, 2013; 앤길틸랜드·윤은하, 「문화간 차이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며」, 『역사문화연구』 제43호, 2012;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의 발전방향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1호, 2012;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은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설문원, 「로컬리티 기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보존기록학 연구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19세기 이래 보존기록학 연구는 사료로서 또한 기록을 생산한 주체의 활동과정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원칙과 취급 방법이 주요 주제였다. 보존기록학 연구의 핵심적 질의는 보존기록의 본질적 속성, 물리적·지적 존재 질서,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유 즉, 평가선별 가치와 같은 것이었다.⁴⁾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

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이영남,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2012;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립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2; 설문원, 「디지털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윤은하,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최정은, 「사회적 기억과 구술의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제30호, 2011;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원중관, 「기억의 공간」,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조민지, 「기록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설문원, 「지역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김일도, 「기록과 권력에 관한 연구: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0; 권순명·이승희,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김정하,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과 기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ary archope) 시론」,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원중관, 「레코드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08; 이승익,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이승익,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6호, 2002; 트러디 패터슨(이상민 역), 「민주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의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제4호, 2001.

- 4) 프레드릭슨은 보존기록학의 구조에 대해 아키비스트 아카이브즈의 활용 같은 경험적(empirical) 보존기록학 이론, 생산, 평가선별, 정리, 기술, 접근 같은 규범적(normative) 보존기록학으로 구분하고,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보존기록학에서의 보다 폭넓은 사회적 상호관계의 맥락을 강조하였다. Berndt Fredrikson, "Postmodernistic Archival Science Rethinking the Methodology of a Science", *Archival Science* Vol. 3, 2003, pp.177-197.

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적 보존기록학 연구가 어떤 결론에 도달 하든지간에 그것은 사회나 시대를 초월하여 절대화될 수 없는 것이며 전제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회·역사적으로 상대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존기록학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자체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무슨 학파나 주의자로 동일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초 스스로에 관한 동일성조차 용인하지 않는 사조를 통해 보존기록학을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방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하나의 용어로서 통용된다는 점은 철학사조로서 최소한의 동일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존기록학과의 연관성을 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구미의 보존기록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이미 분명하게 실재하는 현상이다. 쿡이나 해리스(V. Harris)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렌즈가 보존기록학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실마리를 준다고 보았는데, 아마도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존기록 현상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보존기록 전문가 공동체의 실천을 새롭게 환기시킨다고 본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우선 철학사조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존기록학과 연관된 이슈를 살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이 중요하게 다루어 온 보존기록의 정의와 속성, 출처주의와 원질서 같은 원칙, 보존기록 가치를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보존기록학 연구와 실천의 전망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본 보존기록학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철학사조로서 상대주의, 주관주의, 그리고 폭넓은 회의주의를 특징으로 한다.⁵⁾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정의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칭할 수 있는 바에 대한 대체적 경향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포스트모더니즘은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체적 이론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이 전체주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이론화와 일반화, 체계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하나의 이론체계로 세우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⁶⁾ 다만,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성주의 같은 근대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철학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경험주의와의 비교이다. 경험주의는 인간 밖의 객관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이 경험을 통해 이를 알게 된다는 사고이다. 이러한 객관적 실체는 인간의 내면적 인식이나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객관적 실체를 부정한다. 대신 관습과 언어로 이루어진 개념적 구성물이 인간의 내면 밖에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보존기록이라는 생각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경험주의 철학의 존재론에 대해 제기하는 이견에 의해 부정될 것이다.

5)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post'라는 접두어는 '이후(after-)와 반대(anti-), 그리고 넘어서(trans-)의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근대이후의 사상에 대한 판이한 이해를 보인다고 하였다.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3, 12쪽.

6) 김혜숙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 탈주체, 탈형이상학에 대한 이해와 반성』, 이화여대출판부, 1995, 8쪽.

다음은 의식철학과의 비교이다. 의식철학은 모든 인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의 선험적(先驗的) 자의식이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질서와 진리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자아 선언은 의식철학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개념적 구성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유 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객관적 실재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의식철학의 핵심인 사유하는 ‘주체’의 절대성은 부정하며 대신 언어, 텍스트, 담론 등이 사유하는 주체에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독자적 사유 주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구조화된 언어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상대적 현실을 중시한다.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실재 그리고 사유하는 자아로서 주체 모두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키워드는 바로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는 20세기 초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구조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관계를 실체와 의미의 일대일 내재적 관계로 보지 않는다. 어떤 대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상대적 관계의 체계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의미의 임의적 체계가 바로 ‘구조’이다. 구조는 통시적(通時的)이 아니며 공시적(共時的)으로 한정된 영역에서 통용되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언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바의 내용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공시적 구조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소극적으로 정의된다.⁷⁾

언어의 의미가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된다는 생각은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가 그것을 만든 저자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저자에 대

7) 페르낭 드 소쉬르 저, 김현권 역, 「일반언어학강의」, 지식음만드는지식, 2012.

한 독자 우위의 사고를 제시하면서 언어활동의 산물인 ‘텍스트’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텍스트는 다양한 문화의 복합적 글쓰기의 결과물이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집결되는 것은 텍스트 생산자가 아니라 읽는 사람 즉, 독자이다. 텍스트의 통일적 의미는 그것이 비롯된 기원이 아니라 도달한 목적지에 있는 것이며, 더 이상 개인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자의 등장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⁹⁾

언어와 의미가 임의적이며 텍스트는 저자보다 독자가 우위에 있다는 사고는 출처, 원래의 질서 같은 생산에 관한 기원적 의미를 중시하는 보존기록학에는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전체의 해체를 주장한 데리다는 텍스트와 그 의미의 임의성을 더욱 극단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표’와 ‘기의’의 이원성 자체를 부정했고, 이에 따라 ‘텍스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텍스트 일원론을 주장했다. 그는 언어 표현으로서의 기표와 그것의 의미로서 기의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미는 순수한 의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 표현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은 순수한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표현들이 무한히 순환되면서 표현과 의미의 이원 관계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데리다의 철학은 보존기록학에 있어 근본적이면서도 철저한 발상의

8) ‘텍스트’란 사전적 의미로는 ‘언어의 문장들이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 글’로 정의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쓰기’와 ‘읽기’의 상호관계에서 의미의 가변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텍스트 이면의 폭넓은 요인에 주목한다. 보존기록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에서는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9) 롤랑 바르트, 「저자의 죽음」, 김희영 편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34-35쪽.

전환으로서 ‘해체’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출처나 원질서, 가치 등과 같은, 이제까지의 보존기록학이 견지한 기원적 신조도 자기부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출처는 출처 외적인 것, 원질서는 오염된 질서, 확인된 가치는 배제된 가치에 의존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결국 보존기록에 대한 공표로 드러난 의미 그 자체는 자명하고 신성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순수함을 강조할수록 그렇지 않은 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기억기관으로서 신화화된 보존기록관을 데리다를 통해 보면 전혀 다른 현상이 보이게 된다.¹⁰⁾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하나의 결과물로서의 보존기록은 자명하고 유일한 증거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래의 인과관계 중 어떤 배경적 요인에 의해 선택된 상대적 증거가 구성된 것이다. 물론 이 배경적 요인에는 증거로서 선택되지 않도록 강제된 정황도 포함된다.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보존기록을 객관적 증거로 유일한 의미를 추구하는 한 텍스트에 대한 배경 담론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보존기록학의 해석학적 명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역사가 다양한 조건이 집약된 조화로운 결과가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존재했던 다양한 역사적 가능성이 강제로 배제됨으로써 누락됨과 함께 남겨진 것이 바로 현재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보편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대의 시각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당대 시점에서 본다는 것은 곧 어떻게 말해 지고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아니라, 어떻게 침묵되었고, 기록으로 남지 않았나에서 찾는 것을 의미했다.

푸코는 이러한 배제의 과정을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어 선별되고, 조

10) ‘이상적인 것’은 매개 없이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상적이지 않은 타자에 의해 비로소 이상적인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적인 것은 그 표현에서의 순수함과 달리 이미 이상적이지 않은 오염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데리다의 해체적 독법이다(페넬로페 도이처 저,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 웅진지식하우스, 14-35쪽).

직화되어 분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배제의 과정은 외적 과정과 내적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과정은 ‘금지’와 ‘분리’, ‘배척’으로, 내적 과정은 ‘주석달기’와 ‘저자화’, ‘과목(科目)짓기’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담론에 대한 권력 욕구의 직접적 작용이 외적 과정이며, 배제가 사회구성원 각각에 내면화되는 것이 내적 과정이다. 상대적 사회적 담론이 일정 체계에 따라 생산 분류되어 편파적으로 분배되면 내적 과정으로서의 ‘주석달기’가 반복되면서 지배적 역할이 부여되는데, 이는 선택된 것에 불과한 상대적 담론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푸코에게 ‘저자’란 하나의 텍스트를 만든 개인이 아니다. 그것은 담론 분류의 원리가 작용하는 통일적 근원으로서 상대적 담론이 하나의 정합성을 갖게 만드는 근거이다. 이러한 분류과정의 또 다른 원리가 ‘과목 짓기’이다. 과목은 체계적이며 정합적 원리에 의한 집합이 아니다. 과목의 경계는 배제의 다른 이름인 오류를 식별하여 그것을 경계 밖으로 내보내면 비로소 성립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과목화는 담론 생산의 통제 원리로 작동한다.¹¹⁾ 푸코에게 오류는 진리의 반대말이 아니다. 근대 계몽주의에 의해 성립한 체계적 지식도 합리적 지식의 집합이 아니며, 권력 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푸코에 따르면 보존기록관의 사회·역사적 기원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국가보존기록관(national archives)’이 국가의 통합된 기억을 구현한다는 신화는 배제와 통제의 담론 유통체계를 통해 구축된 합리화에 불과하다. 만약 보존기록학이 사회·역사적으로 불변의 신화를 지닌 국가보존기관을 용인할 경우 이것이 존재 자체보다 존재하게 만든 배경적 의미, 같은 맥락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만든 드러나지 않은 강제에 주목하는 사고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프랑수와 리오타르(Francois Lyotard)는 푸코의 사회적 담론의 불균형을 ‘서사(narrative)’¹²⁾의 문제로 고찰하였다. 그는 지식을 통합하고

11) 미셸 푸코 저,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1992. 13-29쪽.

진리와 정의를 결합하는 거대서사(meta-narrative)를 거부하고 정보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지식은 진실이나 합의의 형성이 아닌 불일치와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통합적 거대서사는 신화적 체계에 불과하며, 총체성이나 전체성 대신 합치되지 않는 이질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수많은 '소(小)서사'로 이루어진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라고 정의하였다. 리오타르는 지식체계를 과학적 지식과 서사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지속적인 논증과 반증의 반복을 통한 정당화(正當化)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서사적 지식은 다양한 언어 게임을 용인하고 불일치를 정당화하는 탈정당화를 지향한다고 보았다.¹³⁾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의 구조인류학에서는 다양한 사회양식이 역사적 선후진이나 우열관계가 아닌 각각 의미가 있는 상대화된 구조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⁴⁾ 리오타르의 공존하는 다양한 소서사나 레비스트로스의 상대화된 사회는 대안적 보존기록화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주류 보존기록관이 지닌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부각시킬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을 보존기록학의 맥락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존기록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의 자기동일성을 부정하는 이른바 임의성의 사고이다. 의미의 임의성은 보존기록학에서 출처나 원질서 같은 당연시되어 온 전제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객관적 증거로서 보

12) 서사(narrative)는 인간의 삶에 관한 지식의 형식이다. 각 형식은 다름지언정 서사는 역사를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 서사는 완결된 구성속에서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자명한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적 사회 담론의 틀에서 만들어져 하나의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리오타르의 생각인 것 같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보존기록에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13) 프랑수아 리오타르 저, 이현복 역, 『포스트모던적 조건 :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성광사, 1992.

14)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김진욱 역,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7.

존기록을 통해 하나의 과정이나 대상이 자명하게 입증된다는 현대 기록관리 환경에서 만들어진 보존기록학의 평가선별 신조는 우선적으로 유보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텍스트로서의 보존기록은 개별 행위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구축된 산물이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동시대적 구조에서 작동하는 상대적이며 임의적인 원리나 가치기준의 문제가 보존기록학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록에 대한 독자 우위의 사고이다.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저자를 절대시 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 문예이론은 보존기록의 생산자로서 출처, 생산자에 의한 원질서를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쿡에 따르면, 이러한 맥락에서의 보존기록은 작성자의 의도된 이야기만큼이나 이용자의 수용이 반영된 것으로서 과거의 사실이 속임수 거울처럼 왜곡된 상태로 보여지는 과거의 흔적에 불과했다.¹⁵⁾ 이는 보존기록의 의미에 있어 보존기록 생산에 관한 기원보다 그것을 읽는 자들이 다양하게 부여한 의미와 그 흐름, 데리다의 용어로는 ‘차연’¹⁶⁾의 운동과정을 보존기록의 본질로 간주하는 근본적인 철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는,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을 상대적인 사회·역사적 담론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통용되는 개념, 질서, 원칙 등은 자연적 산물이 아니며, 사회적 담론의 차별적 공급과 역사적 현재의 실상인 권력 작용의 결과로 보는 푸코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르면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도 현재 권력의 억압과 배제의 원리가 작

15) Terry Cook,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p.27.

16) 데리다는 사물의 본질을 이데아적인 유일 의미로의 지속적 회귀라는 형이상학의 접근, 다시 말해, 기원을 추구하는 자기동일성이 아닌 다름의 반복된 흔적으로서의 자기동일적 운동으로 보았다. 사물은 그 의미가 사물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사물이 시공에서 경과하는 과정에 다르게 부여되는 의미의 운동으로 보는데 이 다름을 시간적 지연과 연계하여 ‘차연’이라 정의하였다.

용하여 조성된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작업 또한 공명정대하고 자명한 기록 증거의 구축이 아니라 억압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보존기록에 하나의 서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자는 물론 이용자, 심지어는 아키비스트도 또 하나의 서사 생산자로 간주된다. 보존기록관에 투영된 권력작용과 남겨진 보존기록을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기억으로 강요하는 독점화된 담론은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여기에서 리오타르의 공존적 소(小) 서사주의는 대서사에서 배제된 소수자나 피억압자에 관한 보존기록화를 주장하는 실천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푸코나 리오타르는 보존기록 평가선별에서부터 그것을 다루는 기법과 원칙에 이르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평가선별은 더 이상 보편적이며 자명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정리 기술에 관한 표준화도 이제까지처럼 그 자체로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이면에 있을지 모르는 상대적 사회 담론의 배타성에 대한 의심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출처나 원질서 원칙을 주장하고 그것을 구현하려는 그 어떤 기획에 대해서도 특정 사회세력의 이해가 투영된 권력 작용에 복무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기원적 성격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보면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이 다루어 온 거의 모든 분야가 그 기반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보존기록학의 기본 개념들에 관한 근래의 연구 추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 주요 개념과 포스트모더니즘

1) 보존기록의 정의와 속성

케텔라르(E. Ketelaar)는 보존기록의 보편적 통제 원칙에 진전이 없으려면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에 관한 개념들이 문화마다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는 19세기 이래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 연구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1898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어 근대적인 보존기록 관리에 관한 고전이 된 『보존기록의 정리와 기술을 위한 매뉴얼』(이하 ‘더치매뉴얼’로 줄임)에서는 보존기록이 생산기관의 활동 결과이자 기능을 반영한다는 보편성을 강조하였다.¹⁸⁾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 연구의 공통점은 보존기록이라는 사회적 산물에 자연적 성격을 부여하고 일종의 유기체로 간주함으로써, 보존기록과 그 구성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기록은 이를 생산한 주체로서 기관 활

17) Eric Ketelaar, “The Difference Best Postpone? Culture and Comparative Archival Science”, *Archivaria* Vol. 44, 1997, p147.

18) S. Muller, J. A. Feith and R. Fruin, (A. H. Leavitt trans.), *Manual for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Archives*, The H. W. Wilson Company, New York, 1940. 더치매뉴얼은 1905년 독일, 1908년 이태리, 1910년 프랑스, 1940년 영어권에서 번역되었다. 1910년 브뤼셀에서 열린 ICA 회의에서 더치매뉴얼의 ‘출처’에 대한 정의가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더치매뉴얼의 출처에 대한 정의는 보존기록학계에서 보편화되었다.

19) Terry Eastwood, “A Contested Realm: The Nature of Archives and the Orientation of Archival Science”, Terry Eastwood · Header MacNeil ed,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010, abc-clio, llo. p.16.

동에 관한 최선의 법적·업무적 증거로 간주되었다. 듀란티(L. Duranti)에 의하면, 보존기록에 대한 정의와 속성은 고대 로마법에서 개념이 생긴 이래 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그것은 ‘공적 신뢰’와 ‘영속적 기억’로 표현된다. 공적 신뢰는 보존기록이 사회에 통용됨으로써 발휘되는 의미를, 영속적 기억은 보존기록에 담긴 내용이 시간을 넘어 지속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를 말한다. 사회적 산물인 보존기록에 자연적인 성격을 접목하는 보존기록 속성론은 젠킨슨(H. Jenkinson)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듀란티에 따르면, 젠킨슨은 보존기록의 특성을 진본성,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유일성, 자연성, 상호연관성 등으로 규정하였다.²⁰⁾ 여기에서 보존기록은 활동의 자연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거로서 그 의미는 자명하면서 유일하고 그 내적 구성은 객관적 연관성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실체로 간주되었다. 근대적 보존기록관리 현장실무에서 아키비스트들은 보존기록을 최선의 증거로 간주하려는 생각을 자신들의 직업적 신념에 투영해 왔다.

최근 들어 보존기록이 생산과 생산자에 관한 자명한 증거나 객관적 과거 사실을 담은 것이라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작은 보존기록의 증거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역사·종교·상징적 목적 하에 시·공간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위해 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²¹⁾ 이는 국가, 단체, 개인의 정체성이 보존기록의 보존과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으로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보존기록을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브로스먼(B. Brothman)도 보존기록을 특정 목적과 관심에 따른 해석이 표현된 것으로 활동에 관한 하나의 흔적일 뿐, 사실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있어 보존기록은 과거의 진실 일부가 개념화된 것이었

20) 이승억,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57-58쪽.

21) Terry Cook,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p.15.

22) Terry Eastwood, "The Nature of Archives", p.16.

다. 또한 그것은 자연적이 아닌 목적의식적으로 포착된 결과물이었다.²³⁾

여(J. Yeo)의 경우, 보존기록의 발생에서 생산자 이외 요소를 거론하였는데, 생산에 관여한 자와 함께 관찰자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끊임없는 활동의 재현물이라고 정의하였다.²⁴⁾ 관찰자라는 표현이 이용자와는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기록 생산자 이외의 존재가 보존기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저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독자주의로 볼 수 있다. 독자가 보존기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케텔라르가 보존기록의 본질을 다양한 의도된 의미로 구성되는 동적 질서로 정의하고 이를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서의 ‘의미의 계보학(semantic genealogy)’으로 표현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케텔라르의 ‘의미의 계보학’에서는 보존기록의 본질을 생산에 의해 정해진 실재가 아니라 이용의 개별적 추론과 탐문 과정에서 해석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²⁵⁾

해리스는 아키비스트에 의한 보존기록의 총괄적 해석에 보다 의미를 두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보존기록을 강조하기 보다는 무엇이 보존되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풍부한 맥락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아키비스트의 일은 기억의 전달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기억 형성에 참여하는 보다 넓은 의의를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²⁶⁾ 해리스의 생각은 보존기록의 의미를 생산자에서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맥락화의 원칙은 보존기록을 해석 산물로 보면서도 더 나아가 어떠한 해석인지 또 어떤 해석이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지 실마리를 주어야 한

23) Brien Brothman, “Afterglow : Conceptions of Record and Evidence in Archival Discourse”, *Archival Science* Vol. 2, 2002, p.18.

24) Terry Eastwood, “The Nature of Archives”, p16.

25) 이승억, 위의 글, 68쪽.

26) Terry Eastwood. “The Nature of Archives”, p19.

다는 실천적 함목적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맥락화 원칙이 어떤 식이든 보존기록관에 투영된다고 본다면 그것은 사회적 담론에 의한 보존기록의 형성이라는 푸코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풍부한 맥락화 원칙이 통합적 대서사를 지양하는 것이라면 리오타르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존기록을 생산의 증거에서 다양한 이용에서 나타나는 의미로 또 해석의 산물로 보는 변화는 보존기록 현상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존기록의 정의와 속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의미의 임의성,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정당화함으로써 의미의 불안정함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쿡은 이에 대하여 고정된 의미 없이 무한히 임의적인 언어 사용이 초래한 본질적 모순이라고 하였는데, 데리다의 해체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은 은폐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서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⁷⁾ 브로스먼은 데리다의 해체 철학에 의해 개별 텍스트·기관·사회적 실천·특정 사건에 관한 전통적 이해를 비트는 대안적 읽기의 길이 열렸다고 보았다. 그는 아키비스트들이 기록관리(recordkeeping)와 텍스트 분석은 서로 무관하며, 그중 상당수는 텍스트로서의 기록이라는 개념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브로스먼은 기록의 속성과 관련한 데리다의 해체작업이 텍스트로서의 보존기록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진실이 텍스트를 넘어서는 텍스트 외적 진실의 영역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기록은 텍스트성과 간 텍스트성이 끊임없이 전복되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었다.²⁸⁾

27)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 1, 2001, pp.5-6.

28) Brien Brothman, "Declining Derrida: Integrity, Tensegrit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es from Deconstruction", *Archivaria* Vol. 46, 1999. p.65-82.

2) 보존기록의 관리 원칙 :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제도화된 보존기록관에서 일해 온 아키비스트들은 다른 출처가 포함되지 않는 풍(fonds)과 생산자들에 의해 조성된 원래의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보존기록 정리와 기술에 관한 아키비스트들의 고전적 전범인 더치매뉴얼에는 기록이 만들어진 기능적 특성 즉, 동일한 출처로 묶이는 보존기록 전체의 유기체적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스너(E. Posner)는 단일기관 등록소를 고유한 생애원칙을 지닌 유기체로 간주하는 등록소 원칙이 도입됨으로써 보존기록 전체에 하나의 분명하고도 영속적인 특성이 적용되었고, 이로써 출처의 원칙이 새롭게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포스너는 이러한 출처주의가 보존기록이 전·현 행정기관 조직과 상응해야 하고 보존도 그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⁹⁾

젠킨슨(H. Jenkison)과 쉘렌버그도 마찬가지였다. 젠킨슨은 아키비스트에 의한 기록의 선별이 원래의 질서를 훼손시킨다는 이른바, 비평가주의의 입장을 취할 정도로 출처와 원질서를 신성시 했다. 그렇지만 아키비스트에 의한 선별을 주장한 쉘렌버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로서 임의적 주제가 아닌 기록을 공식적으로 생산했거나 그것을 모아서 유지한 실체로서의 기관 특성이 반영된 체계대로 보존기록을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출처나 원질서에 대한 이해는 보존기록학을 역사학 같은 다른 학문에 부수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 학문으로 정립하려 한 아키비스트

29) Jennifer Douglas, "Origins: Evolving Ideas abou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erry Eastwood · Header MacNeil ed.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010, abc-clio, llo, p.26.

30) Ibid., pp.26-27.

들의 공통된 사고이기도 했다. 대량생산으로 선별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보존기록의 구성이 생산의 맥락과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선별되어 다른 목적에 따라 재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갔다. 보존기록을 정부같은 조직만이 아니라 가문에 이르기까지 보다 확장된 기록 생산 실체와 철저히 연계시키는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원칙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보존기록학의 특징적인 개념적 근간이 되었다.³¹⁾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더치매뉴얼에서 제시된 원칙이 보편적 원리를 추구한 결과라기보다는 매뉴얼 출간 당시 네덜란드 기록물 상황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오래된 보존기록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기록물 컬렉션의 정리 및 목록 작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리와 기술의 원칙화에는 작업의 동일한 결과를 지역에 상관없이 기대하기 위한 통합적 실무라는 현실적인 행정적 목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²⁾ 결국 이에 의하면 출처나 원질서 존중주의가 그 발생기에 한 하나의 현실적 실무 방안에서 출발하여 점차 보편적 원칙으로서 규범화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출처나 원질서가 원칙으로 유지되는 중에도 다른 출처의

31) 미국 아키비스트협회(SAA) 보존기록학 전문용어사전에서 ‘출처’는 1. 어떤 것의 기원이나 원천 2. 하나의 아이템이나 컬렉션이 소유권, 보관, 생산, 배경(context)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어 있다.(A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Terminology, SAA, 2005, p.317. 같은 단체가 펴낸 이전 버전인 1992년판에서는 1. 레코드센터나 보존기록관에 이송되기 전 업무활동에서 기록을 생산, 축적, 유지, 활용한 ‘조직과 개인’ 2. 문서 보유의 역사나 기원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였다.(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s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SAA, 1992, p.27) 1992년 용어사전에는 ‘출처’와 함께 ‘출처주의’가 있었지만, 13년 뒤의 개정판에는 보이지 않는다.

32) John Ridener, *From Folders to Postmodernism : A Concise History of Archival Theory*, 2009, Litwin books LLC. p.144.

보존기록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은 실제 구현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보존기록 관리에 도입된 ‘레코드그룹’이 그것을 보여준다. 레코드그룹은 다수 생산기관들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출처가 섞이지 않는 ‘푹’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실용적 개념은 실제 보존기록이 다양한 맥락의 관리과정에서 반드시 출처나 원질서를 감안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의해 모여지곤 하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호주의 시리즈시스템은 국가적 단위의 보존기록 관리에서 푹 중심 출처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또 다른 예이다. 시리즈시스템에서의 출처는 단순히 기록이 만들어진 기원이나 원천이라기보다는 기록의 관리와 배경적 실체 사이의 관계망으로 정의되는 상대적인 것이었다.³³⁾ 출처주의나 원질서 존중의 사고는 물리적인 것에서 개념적인 것으로 이전되면서 하나의 원칙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바(D. Barr)는 기존 푹 존중주의가 기록의 생산, 활용, 축적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는 추상적 성격의 푹을 물리적 실체로 이해한 오류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보존기록관이 이관된 기록물을 누적된 맥락질서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단층으로 묘사했다.³⁴⁾ 호스만(P. Horsman)도 푹과 그 안의 원질서를 실체적 현실과 구분하였다. 그는 이를 아키비스트의 노력에 의한 선행적 질서라고 정의하면서 물리적 질서와 논리적 질서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였다.³⁵⁾ 출처나 원질서를 임의성이나 주관적 목적의식성을 통해 설명하고자하는 견해도 있다. 파보네(C. Pavone)는 기관과 보존기록과 구별하고, 보존기록에는 그것을 생산한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구성

33) Peter Scott, “The Records Group Concept: A Case for Abandonment”, *American Archivist* Vol. 29, 1966, 이승익 역, 「호주의 국가기록관리시스템: 레코드그룹 개념의 포기」, 『기록보존』 제17호, 2004, 179-187쪽.

34) Jennifer Douglas, “the Principle of Provenance”, p.30.

35) Ibid., p.30.

하고자 하는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출처 개념에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역사가 아니라 보존기록 자체의 연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발렌티(P. Valenti)는 원질서와 관련해 목적의식적으로 도출된 ‘보존기록적 구조(archival structure)’를 제안했다. 이 또한 존중해야 할 질서로 원칙화된 원질서라는 것이 실제로는 임의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스미스(T. Nesmith)의 경우 원질서란 그 의미 그대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았다. 대신 보존기록관으로 기록이 들어올 당시의 질서로서 ‘입수 질서(received order)’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출처주의와 관련하여 기록의 생산은 관리·이용·해석·재현 등이 포함된 기록에 대한 다양한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창출이라는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폭넓은 기록 생산이 하나의 결정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는 바(Barr)와 마찬가지로 보존기록이 보존기록관에 입수될 당시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⁶⁾

출처에 사회적 성격을 부여한 이른바 사회적 출처(societal provenance)를 중시한 견해도 있다. 우얼(J. Wurl)은 이민사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출처로서 ‘민족성(ethnicity)’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기록생산이 사회 집단,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성도 집단의식으로서 기록의 생산과 함께 보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의 민족성은 보존기록에 담긴 주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존기록의 ‘출처’를 구성하는 요인이었다. 예컨대 ‘민족성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민족성에 의한 기록’인 것이다.

바스티안(J. A. Bastian)은 집단적 기억과 그에 관한 기록이 만들어진 장소로서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출처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 식민 지

36) Ibid., pp.32-33.

배 전후 미국 버진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기록의 공동체(community of records)’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기록을 생산하는 실체로서 또한 생산된 기록을 통한 기억의 틀 두 가지 모두로 기능하는데, 기록의 공동체는 기록과 공동체간의 역동적 시너지를 담은 개념이었다.³⁷⁾

여와 노들랜드(L. Nordland)는 출처와 원질서 형성자로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을 강조한 경우이다. 여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관리자에 의해 취해진 선택에 의해 보존기록이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노들랜드는 보존기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아키비스트의 재해석을 염두에 둔 ‘2차 출처’ 개념을 제시하였다. 네스미스도 출처 도출과정에서 생산자보다 아키비스트의 기여가 크다고 보았다.³⁸⁾

케텔라르는 보존기록관에서 행사되는 하나의 권력구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제도화된 보존기록관에는 이용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정책, 규제, 진실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종의 권력관계를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경험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출처, 원질서, 가치에 대해 보존기록관이 구축한 기원적 관념을 하나의 보편적 원칙으로 이용자들이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케텔라르는 아키비스트나 보존기록관이 보존기록의 재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록의 또 다른 저자 역할을 행한다고 하였다³⁹⁾

기록의 출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위적 해석에 의해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질서로 보는 점은 출처나 원질서에 관한 사고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로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나 원질서는 용어 자체가 담고 있는 기원적 특성과 달리 실체적으로 명확한 구현이

37) Ibid., pp.33-35.

38) Ibid., p.36.

39) Eric Ketelaar, “Archival Temple, Archival Prisons: Modes of Power and Protection”, *Archival Science* Vol. 2, 2002, pp.221-238.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실체가 아닌 개념적 실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맥락에서 출처 개념을 확장한 것은 특정 맥락에 한정하여 정의하는 출처나 원질서가 생산에 귀속되는 출처를 대체하였음을 의미한다.

출처주의나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원칙으로서의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은 실체와 의미의 임의성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와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출처와 원질서의 구성에 있어 해석의 주체인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의 저자에 대한 독자 우위의 사고와 연계될 것이다. 푸코적 관점에서 출처주의나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보존기록관 제도를 기반으로 아키비스트가 행사하는 권력의 산물로서 사회역사적인 구조적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브로스먼은 데리다가 출처나 원질서, 물리적 매체와 관련된 아키비스트의 작업을 고압적인 형이상학적 작업의 대표 사례로 보고, 이것이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기술 원칙이 의미와 존재를 결합하는 '진본'의 생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고 하였다.⁴⁰⁾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한 상대주의적 회의가 깊어지면서 아키비스트가 보존기록의 일반적 속성 같은 보편타당한 원칙에 입각해 일해 왔다는 믿음이 거둬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회의에 철저해지면서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이 포착하지 못한 또 다른 현상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될 수도 있다.

3) 보존기록의 가치 : 평가선별

20세기 현대 보존기록관리 환경에서 아키비스트들은 다수의 기록 중에서 가치를 확인하여 장기 보존할 것을 정의하는 보존기록 평가선별

40) Brien Brothman, "Declining Derrida", pp.77-78.

을 자신들의 학문연구와 직무수행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해 왔다. 구미의 보존기록 평가선별에서 주체를 기준으로 생산자와 제3자 아키비스트에 의한 평가라는 두 입장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국의 켄킨슨은 1922년 발표한 저작에서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이유는 생산과정에 있으며, 보존기록관은 생산자가 남긴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의 쉘렌버그는 생산된 목적에서의 활용이 종료된 후 후속의 이용자를 위해 아키비스트가 확인해야 할 범주화된 가치를 찾았다. 이른바 2차 가치로서 ‘증거’와 ‘정보’는 계속적 보존 가치를 위한 개념이었다. 켄킨슨이 아키비스트의 선별을 경계하고 대신 그들이 수호해야 할 보존기록이 지닌 속성을 중시했다면, 쉘렌버그는 아키비스트에게 위임된 보존기록 가치의 확인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도 보존기록 생산 맥락을 도외시한 선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둘 다 마찬가지였다. 이는 초기 아키비스트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노턴(M. Noton)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키비스트의 평가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생산 맥락과 구조를 중시하였다.⁴¹⁾ 20세기 초 마이스너(H. Meisner)나 뮐러(K. Müller) 같은 독일 아키비스트들은 행정조직의 위계가 보존기록 가치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었다.⁴²⁾ 평가선별에 관한 이러한 초기 사고는 보존기록의 속성과 생산 배경에 의거하여 보존기록이 남겨져야 된다는 것으로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쉘렌버그의 정보가치는 출처 기반의 평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는 기록 내용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필요한가 비출처적 평가 질문에 대

41) Thornton W. Mitchell ed. *Norton on Archives : The writing of Margaret Cross Norton on Archival and Records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75.

42) Ciaran B. Trace, “On or Off the Records? Notion of Value in the Archives”, Terry Eastwood · Header MacNeil ed.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010, abc-clio, llo, p.49.

한 답이었다. 이러한 실용적 관점은 당연히 젠킨스류의 생산자 우선론에 의해 비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처분 기준이 필요했던 현실 평가선별 제도에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본질적으로는 젠킨스의 생산자선별론이나 쉘렌버그 가치론 모두 보편적 준거를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적용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비평가주의의 근거인 보존기록 속성론이나 가치론의 가치범주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볼 경우 데리다의, 해체적 독해를 통한 비틀기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보존기록의 보편적 속성은 철학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기보다는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적 반대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치의 범주는 지식의 분류행위 자체가 지닌 담론 의존적 특성에서 보면 표현에서의 규칙화 자체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원칙론적 지식도 전문화·합리화·체계화 이면에 있는 상대적 담론의 편파적 유통을 통한 억압과 배제의 권력 작용이라는 푸코적 해석틀에 의해 분해될 것이다.

셸렌버그 가치론에 나타나는 보편론적 언술은 기록이 담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의해 비판되었다. 서술적으로 정의된 가치 범주는 기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방해함으로써 실질적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것이 이러한 비판의 내용이다. 따라서 평가선별의 의미를 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두었다. 붐스(H. Booms)의 ‘당대 주요 정치적 사건과 발전단계의 반영’, 햄(G. Ham)의 ‘인간 경험의 폭넓은 범위’나 ‘동시대의 대표적 척도’라는 표현이 그러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사회의 표상이다. 붐스는 행정체 위상에서 보존기록의 가치를 찾는 독일의 전통적 평가선별에 의문을 품었고, 햄은 1960년대 반전운동, 흑인민권운동으로 격동하는 미국에서 주류 보존기록관의 보존기록이 미국사회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들은 계급 계층의 분열과 이데올로기 대

립이라는 상황에서 배태된 문제의식을 사회의 기록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투영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사회 전반을 반영한 것으로서 구성원 전원이 공유하고 수용 가능하며, 후대로 전승할 의미가 있는 대표적 척도라는 햄의 화두는 또 다른 보편론으로 귀결된다. ‘전 사회구성원’, ‘대표적’ 등의 언술에서는 또 다른 절대화를 읽을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를 도외시한 가치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두된 사회표상론은 비주류에 대한 공평한 기록화를 표방하면서도 전 사회의 기록화라는 통합 서사의 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체로 포괄하는 통합적 전체화를 지향한 것이다. 붐스의 경우 각 사회마다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적 발전 도상의 한 단계에 속한 사회가 기록화 플랜의 전체였다. 이는 다양한 사회양식을 상대화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과 다른 것이었다. 캐나다의 거시평가(macro-appraisal)는 균형적 보존기록화를 강조하는데, 이 또한 상대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다. 거시평가는 정치적 이념의 치우침 없이 균형적으로 국가와 시민의 역동적 상호관계의 과정을 보존기록에 담는 것이 취지였다.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나 붐스의 기록화 계획, 캐나다의 거시평가 모두 철학적으로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절대화된 통합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보존기록 현상 전반에 대한 회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획일적 현실을 부정하고 나아가 현실 자체를 모호한 것으로 간주하며, 절대적 진리는 없고 단지 해석이 있을 뿐이며, 권력을 의미하는 지식은 편파적이며 불확실하며, 텍스트로서 보존기록의 의미는 생산자가 아닌 독자의 의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³⁾ 쿡과 슈워츠는 무엇을 표방하든 평가선별 활동은 언어, 개인과

43) Ciaran B. Trace, "Notion of Value in the Archives", p.59.

조직의 심리, 권력에 의해 걸러지고 매개되어 영향을 받는 당대 사회 거대서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⁴⁾

보존기록의 본질적 특성이나 전문직으로 아키비스트의 신조가 특정 정책의 맥락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젠킨슨 비평가주의를 전쟁 중 방대해진 전시 정부조직이 기록을 대량생산한 상황에서 전쟁 수행 전모의 누락 없이 보존기록화하기 위한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그것이다.⁴⁵⁾

케텔라르는 보존기록이 만들어지는 암묵적 과정에 주목하고 그러한 보존기록화의 과정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푸코와 같은 맥락에서 전체주의 사회가 공적인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 제도를 감시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⁴⁶⁾ 여기에서는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을 장악하지 못한 권력은 온전하게 행사될 수 없다는 데리다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나아가 보존기록관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구축된 가치의 있고 없음이라는 이원체제를 해체함으로써 거기에 내재된 권력관계를 무력화시키려는 해체 전략의 면모도 보인다.⁴⁷⁾ 노명환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제까지 당연시 된 보존기록 및 보존기록관이 사회의 특정 상황에서 또는 본질적 영역에서 위협을 드러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보았다⁴⁸⁾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보존기록 평가선별이 추구하는 합리성이나 보편성도 언술 그대로가 아니라 상대화시킨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

44) Terry Cook · Joan M, Schwartz, "Archives, Records, and Power: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Vol. 2, 2002 pp.182-183.

45) John Ridener, *From foler to Postmodernism*, p.146.

46)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 2001; "Archivalis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Vol. 27, 1999.

47) Ciaran B. Trace, "Notion of Value in the Archives", p.60.

48)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의 발전방향-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10호, 2012. 105-108쪽.

다. 앞서 논의한 포스트모더니즘 즉, 존재와 의미를 이원적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리다 철학, 저자에 대한 독자 우위의 바르트 기호학, 권력작용에 의한 상대적 사회 담론 질서로 동시대를 이해하려는 푸코의 역사학, 그리고 다양하고 일치하지 않는 소서사를 용인하고 정당화(正當化)를 대신할 탈정당화를 지향한 리오타르 등은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이 견지해 온 보편타당한 평가선별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평가선별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하는 기조에서는 평가선별의 결과로 도달하게 될 도큐멘테이션 자체보다는 그러한 도큐멘테이션을 형성시킨 상대적 근거와 과정이 주목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평가선별을 수행하는 아키비스트 또한 상대적 맥락화의 현실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존기록과 마찬가지로 보존기록을 다루는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이나 행위 그 자체도 회의의 대상이 된다. 해리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창조적 긴장 속에서 반대급부를 취하도록 추동한다고 보았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주의에서 침묵을 통해 배제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살피는 실천적 자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해체를 통해 경계 밖의 다른 것을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데리다를 해석이 아닌 실천의 추동력으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⁴⁹⁾ 해리스는 해체철학이 보존기록에 관한 급진적인 행동주의를 고무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의하면 보존기록 평가선별은 단지 수동적으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키비스트가 공동체와 더불어 공동체에 의미 있는 보존기록을 정하는 자주적 참여 과정으로 재정의 될 수 있다.⁵⁰⁾

49) Ciaran B. Trace, "Notion of Value in the Archives", p.60.

50) Ibid., p.57.

4. 맺음말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그 어떤 현실도 그것에 대한 표현이 담고 있는 담론을 결코 초월할 수 없다. 보존기록학 연구를 통해 보존기록에 관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 ‘현실’은 철저하게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는 특권적 언어의 구조 속에서나 통하는 ‘상대적 현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보존기록을 하나의 구축된 산물로서 사회적 규범 행위, 언어 전통, 기술적 규칙, 조직적 처리 등의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적인 양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며, 그것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원칙도 내용은 물론 그 기획 자체도 상대주의에 입각해 회의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아키비스트들도 이러한 깊숙한 상대적 맥락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은 보존기록에 내재한 본질적 정의, 출처나 원래의 정리 질서, 선별되어야 마땅한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 보존기록학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브로스먼은 아키비스트들이 근본적으로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⁵¹⁾. 그렇지만 그와 상관없이 보존기록학에서의 보편타당한 정의나 원칙, 기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회의가 근래 보존기록학 연구의 주목할만한 경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대적 학문으로서 보존기록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온 출처나 원질서 같은 원칙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접목되면서 그 기원적 표현 자체가 아닌 사회적으로 상대화된 언술로서의 담론을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51) Brien Brithman, "Declining Derrida", p.64.

이렇게 보존기록의 정의와 속성, 원칙, 가치 등을 상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보존기록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해명하려는 시도가 보존기록학 고유의 학문적 진진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보존기록과 보존기록관 현상을 소재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철학 논의에 머물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사회의 구조적 질서 일부로 제도화된 보존기록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를 통해 모순을 타개하려는 실천행동이 배제된 소수를 살피고자 하는 사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 보존기록관에 의해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과 현상의 보존기록화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제의식에 대하여 보존기록 전문가 공동체의 공감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존기록 현상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 영향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비주류 계층·계급, 주변부 지역에 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고무적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담론 독점과 배제의 경계를 허무는 대안적 가치에 기반한 보존기록학의 학문적 기대 또한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적 사회 담론에 입각한 보존기록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소수자를 포착하는 대안적 보존기록화 운동은 그것을 이상화하는 언술과 실천 과정에서 하나의 전체적 경향성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존하는 소서사회가 총체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거쳐 또 다른 대서사회가 도래하고 중국에는 이것이 대서사회의 특성적 모순을 답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대안적 보존기록화 운동이 하나의 제도로서 사회적 기관으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²⁾

52) 해리스는 남아공 인종차별정책 저항과정에서 형성된 이른바, '정의를 위한 보존 기록(archives for justice)' 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아공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이 인종차별정책 청산 이후 동력을 잃고 관료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되었지만 그 후

이는 실존적 아키비스트의 실천행위 측면에서 논의할 때 보다 민감해 질 것이다. 즉, 사회 담론의 편파적 보급이라는 권력 작용의 결과인 지배적 보존기록, 이를 부조리로 간주하는 대안적 보존기록화 운동,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보존기록화 운동의 사회적 맥락화로서의 제도화,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 보존기록화 운동, 이와 같은 연속적인 전복의 과정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적 보존기록화의 양상이라고 할 때, 아키비스트 실천은 그것이 도달하려는 지향점이라기보다 끊임없는 전복행위 그 자체라고 해야할지 모른다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보존기록 현상에 대한 계몽적 통찰력과 민주주의에 진전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해도 포스트모더니즘 철학 자체에서 아키비스트가 실천의 목표로 삼을 만한 이상적이고도 구체적 그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아키비스트의 정신세계와 현실 행동에서 부조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전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⁵³⁾

상당수 철학사조와 사회사상이 모색한 실천 계획과 그 결과로 도달하게 될 구체적 상태와 같은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자우위의 사고가 가진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기록을 생산한 자는 자명한 반면 그것을 이용하는 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리와 기술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로 일반의 접근도 제한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사실상 국가보존기록관 속에 묻혀 버렸다. 데리다는 199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1차 보고서 공표의 의미를 기억이 아닌 망각의 수순으로 이해하였다. Verne Harris, "Jacques Derrida meets Nelson Mandela: Archival Ethics at the Endgame", *Archival Science* Vol. 11, 2011, p115.

53) 리오타르는 '인지'와 '실천' 양자가 별개로 공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닫혀 있는 문'의 상태에 관한 두 가지 진술, '문이 닫혀 있다'와 '문을 여시오'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천적 이성으로서 '문을 여시오'는 인지적 이성으로서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과학적 담론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자는 두 가지 자율 규칙의 집단에 별도로 종속된다는 것이다.(리오타르, 『포스트모던적 조건』, 93쪽)

용자 우대라는 정책적 수사를 벗어나는 순간, 보존기록 현장에서 그러한 의의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한 평가선별은 도상훈련이면 모를까 특정 보존기록관 단위에서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 데리다의 해체가 ‘디스트럭션’이 아닌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여 파괴 후 재구축을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파괴단계에서 나타나는 신랄함의 구체성을 해체가 완성되는 재구축 단계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는 낡은 생각을 향한 위력적인 공성구(攻城具)인지는 몰라도 전쟁으로 도달하려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 어쩌면 그런 구체적인 것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의 특성적 본령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보존기록학을 현장의 실용 학문이라고 믿는 완고한 아키비스트들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전히 거리를 두는 것을 단순히 철학에 무관심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보존기록 현장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단정이 희석되지 않는 한, 현장 실무 세력을 중요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존기록학 공동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회의를 통해서, 보존되어 있는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기대는 행동주의 아키비스트 실천운동의 충실한 동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통해 자각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아키비스트와 그들의 실천 의지가 운동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쿡은 데리다류의 해체를 통해 아키비스트가 스스로를 닫고 억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 새롭게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⁵⁴⁾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폐쇄가 아닌 개방

54) Terry Cook,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pp.34-35.

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막연한 낙관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안주하지 않고 그 밖의 것을 수용하려는 개방적 자세 그리고 소수와 배제에 주목하는 민주적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은 보존기록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입지는 물론, 보존기록학 연구의 발전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ccepting out of Boundary
: Archival Science and the Impact of Postmodernism

Lee, Seung-Eok

From the perspective of postmodernism, no reality can exceed the discourse included in the representation. Recently, impact of post-modernism of archival science is often observed. Affected by postmodernism in archival science studies, archives are deliberately constructed product, and any kind of archival principle is negatively examined, not only contents but also its planning accordingly to the researches of post-modernism archives. In the eye of postmodernism, archivists are also considered as being exposed to the context of relativity. While this is sometimes seen as negative, there are such positive opinions that postmodernism would bring us closer to the reality of archives. In this paper, the nature of archives, provenance, original order and archival value as the basic concept of the modern archival science, will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postmodernism. Also, effect and prospect of postmodernism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postmodernism, archives, archival science, provenance, original order, archival value

